



돌돌이와 줄줄이



김 성 현

샘터에서 솟아오른 돌돌이와 줄줄이
어깨동무 나란히 노래하며 흘러갔네
꽃구름 방실 꽃배도 동동
출렁출렁 춤을 추며 흘러가는데
발전소 높은 언저리 앞길에 나타났네

- 줄줄아 우리도 언저리에서 뛰어내려
발전기 썩썩 보람있는 일을 하자
돌돌이의 말에 줄줄이 머리기웃
- 편안한 길도 많고많은데
뿔때문에 어렵고 험한 길로 갈까
슬그머니 손을 놓은 줄줄이 남이 볼세라
저 혼자 다른 길로 들어섰네

발전기 썩썩 기운차게 돌려주고
또다시 큰 강되어 흐르던 돌돌이
함께 오던 줄줄이 찾고찾았네
이쪽저쪽 기슭에서 찾고찾았네

- 줄줄아! 줄줄아! 너 어디 있니?
뜻밖에 산밑에서 울려오는 소리
- 돌돌아 나 여기 땅속에 있어
- 뭐, 뭐라구? 어쩌다 캄캄한 땅속에...

줄줄이 한숨쉬며 간간이 말했네
- 오솔길 굽이굽이 돌아오다니니
저절로 땅속에 찾아들줄은...

그러자 돌돌이 애타게 말했네
- 보람있는 길에 뛰어들지 않고
편안한 길만 찾아가더니
스스로 자기 존재 끝마치게 되는구나

